

#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223호 (2014-02) 발행일 : 2014. 01. 10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시사점

OECD 기준(중위소득의 50~150%)에 따른 중산층 규모,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산층 동태 분석을 바탕으로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

중산층 70% 달성을 위해서는 복지정책 및 조세정책 등의 확대가 필요. 4가구 중 1가구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유동하는 가구로 추정되며, 2011년의 경우 이전 소득 및 조세가 중산층을 7.1%p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

중산층 확대를 위해서는 중산층 탈락 위험 집단(중위소득의 50~75%)과 중산층 진입 가능집단(중위소득의 25~50%)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실시 필요



김미곤  
사회통합연구센터 연구위원

### 1. 중산층 개념

#### ■ 가치가 내포된 중산층 개념

- 일반적으로 중산층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빈곤층) 사이의 계층을 의미함. 하지만, 고소득층과 중산층,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구분하는 선에는 이미 가치가 반영되어 있음
- 중산층 개념이 가치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특정한 사회의 관행에 의해 정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난해함. 이 결과 중산층 개념정의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 기존 연구의 중산층 개념정의 방식

- 중산층이 지니고 있는 세 가지 의미(Levy, 1983; 미 상무부, 2010)
  - 첫째, 사회학적 관점의 중산층: 특정 교육수준을 달성하고, 특정 수준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직장에 다니며, 특정한 가치와 태도를 지닌 사람으로 규정됨(Coleman & Rainwater, 1978). 이러한 사회적 관점의 중산층을 미 상무부는 Middle Class in America에서 다차원적 관점의 중산층이라고 규정

- 둘째, 경제학적 의미의 중산층: 중산층 생활수준을 향유하는 것 혹은 소득이 소득분포에서 중간 어디엔가 존재하는 것으로 계측되며, 이는 다시 절대적 방식과 상대적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표 1 참조)
- 셋째, 주관적 인식에 의한 중산층: 사람들의 계층의식을 바탕으로 중산층을 파악하는 방식. 동 방식의 문제점은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이거나 상당히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임

〈표 1〉 경제학적 관점의 중산층 범위

구분	기준 지표	중산층 범위
절대적 방식	소득	1인당/일 \$2~\$20 (2005 PPP\$, ADB, 2010)
		1인당/일 \$4~\$20 (World Bank, 2011)
		1인당/일 \$2~\$60 (PPP\$,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12)
		1인당/일 \$10~\$100 (2005 PPP\$, Kharas and Gertz, 2009)
	소비	1인당/일 \$2~\$10 (2005 PPP\$, Banerjee and Duflo, 2008)
		개발도상국의 경우 1인당/일 \$4~\$10 (Ravallion, Chen, and Sangraula, 2008)
상대적 방식	소득	소득분포의 20~80% (Easterly, 2001)
		중위가구소득의 50~150% (OECD)
		중위가구소득의 75~125% (Thurow, 1985)
		중위소득의 75~125% (Birdsall, Graham, and Pettinato, 2000)

자료: Pressman, Steven(2001), 미 상무부(2010) 등 자료 종합정리

## 2. 중산층 규모

### ■ 연도별 중산층 현황

○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의하면, 중산층(중위소득 50~150%, 이하 동) 규모는 2008년에 63.1% 까지 줄어들다가 이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2〉 연도별 소득계층별 규모(1인가구 포함, 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연도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
2006	14.3	64.6	21.0
2007	14.8	63.9	21.3
2008	15.2	63.1	21.7
2009	15.3	63.1	21.6
2010	14.9	64.2	20.9
2011	15.2	64.0	20.8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 한국복지패널 자료에 의하면, 시장소득기준 중산층은 58.6%, 경상소득기준 중산층은 63.9%,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은 65.7%로 밝혀지고 있음

- 중산층 확대라는 관점(이하 분석에서는 동 관점에서 기술)에서 중산층 탈락 위험집단과 저소득층의 중산층 진입 가능집단을 살펴보면, 가처분소득기준 중산층 하위 집단(중위소득의 50~75%)은 15.9%, 빈곤층 상위집단(중위소득의 25~50%)은 11.1% 추정됨

- 시장소득기준 중산층 규모와 가처분소득기준 중산층 규모 간의 차이는 공적이전 소득 및 조세로 인한 차이  
이므로 정부의 역할을 의미. 2011년의 경우 정부 역할로 중산층이 7.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소득계층별 중산층 규모(2011년. 이하 등) (단위: %)

구분 <sup>1)</sup>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고소득층		22.8	21.8	20.8
중산층		58.6	63.9	65.7
	중산층 하위집단	(14.7)	(16.0)	(15.9)
저소득층	저소득층 상위집단	(10.8)	(11.6)	(11.1)
		18.6	14.3	13.6

주: 1) 고소득층: 중위소득 150% 이상, 중산층 상위집단: 중위소득 75% 이상 150% 미만, 중산층 하위집단: 중위소득 50% 이상 75% 미만, 저소득층 상위집단: 중위소득 25% 이상 50% 미만, 극빈층: 중위소득 25% 미만. 이하 등  
자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이하 등

### 3.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 ■ 가구주 연령

- 고소득층 이상 중상위집단에 비해, 중산층 하위집단이나 저소득층 상위집단의 평균연령이 높고, 특히, 65세 이상 가구주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표 4〉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집단별 가구주의 연령 (단위: 세, %)

구분	평균연령	45세 미만	45~64세	65세 이상	합계	
고소득층	48.2	36.2 ( 21.2)	57.9 ( 24.4)	5.9 ( 8.0)	100.0 ( 20.8)	
중산층	상위집단	48.3	41.4 ( 58.0)	49.9 ( 50.5)	8.7 ( 28.5)	100.0 ( 49.8)
	하위집단	51.9	32.3 ( 14.4)	46.0 ( 14.8)	21.8 ( 22.6)	100.0 ( 15.9)
저소득층	상위집단	60.6	17.9 ( 5.6)	37.4 ( 8.5)	44.7 ( 32.6)	100.0 ( 11.1)
	극빈층	64.0	12.7 ( 0.9)	36.0 ( 1.8)	51.3 ( 8.3)	100.0 ( 2.5)
합계	50.6	35.6 (100.0)	49.2 (100.0)	15.3 (100.0)	100.0 (100.0)	

#### ■ 가구규모 및 가구유형

- 가구규모가 적을수록 소득이 낮은 경향을 보임. 이는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 등 노인의 저소득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특히, 저소득층 상위집단의 경우 1, 2인가구가 50% 이상을 차지함

〈표 5〉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집단별 가구규모 (단위: 명, %)

구분	평균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합계	
고소득층	3.7	3.6	11.1	22.8	44.4	14.7	3.3	100.0	
중산층	상위집단	3.6	4.4	12.1	23.0	43.0	13.4	4.1	100.0
	하위집단	3.4	7.1	22.8	21.7	30.6	12.0	5.7	100.0
저소득층	상위집단	2.6	20.1	34.4	19.8	15.5	8.0	2.2	100.0
	극빈층	2.3	36.9	27.9	17.9	10.6	3.7	3.1	100.0

○가구유형별로 보면, 중산층 하위집단과 저소득층 상위집단에는 단독가구와 한부모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집단별 가구유형 (단위: %)

구분	구분	단독	모자	부자	소년소녀가정 및 조손	일반	합계
고소득층		3.6	0.0	0.1	0.0	96.3	100.0
중산층	상위집단	4.4	0.4	0.1	0.1	95.0	100.0
	하위집단	7.1	3.2	1.1	0.5	88.3	100.0
저소득층	상위집단	20.1	2.8	0.8	1.6	74.7	100.0
	극빈층	36.9	0.3	0.0	1.4	61.5	100.0

■ 주거 점유형태

○중산층 하위집단과 저소득층 상위집단은 상위계층에 비해 자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보증부 월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7〉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집단별 주거점유형태 (단위: %)

구분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기타	합계
고소득층		70.1	20.0	5.8	0.4	3.7	100.0
중산층	상위집단	60.6	20.2	13.5	1.4	4.3	100.0
	하위집단	50.5	19.7	21.6	1.8	6.4	100.0
저소득층	상위집단	47.5	15.9	21.1	3.4	12.2	100.0
	극빈층	48.6	13.8	18.3	3.1	16.3	100.0

■ 가계 주 부양자의 특성

○중산층 하위집단과 저소득층 상위집단의 경우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상위계층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남.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현상과 무관치 않은 결과로, 노인과 함께 여성의 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 개발이 요구됨

〈표 8〉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집단별 주 가계부양자 특성 (단위: %)

구분	구분	가구주				배우자			
		성별			연령	성별			연령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고소득층		95.3	4.7	100.0	48.2	0.4	99.6	100.0	45.4
중산층	상위집단	92.1	7.9	100.0	48.3	0.7	99.3	100.0	45.2
	하위집단	78.0	22.0	100.0	51.9	2.0	98.0	100.0	48.4
저소득층	상위집단	68.7	31.3	100.0	60.6	3.3	96.7	100.0	56.9
	극빈층	59.8	40.2	100.0	64.0	6.7	93.3	100.0	58.9

■ 경제활동 현황

○가구내 평균 근로자 수는 고소득층과 중산층 중상위집단이 각각 1.9명과 1.7명으로 맞벌이의 비중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됨. 이에 비해, 중산층 하위집단과 저소득층 상위집단은 각각 1.2명과 0.7명으로 상대적으로 근로하는 가구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중산층 하위집단과 저소득층 상위집단의 근로자 비중은 각각 37%과 25%로 상위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표 9〉 가치분소득 기준 소득집단별 가구내 근로자 비중 (단위: 명, %)

구분	평균 근로자수(A)	평균 가구원수(B)	근로자 비중(A/B)	
고소득층	1.9	3.7	0.51	
중산층	상위집단	1.7	3.6	0.46
	하위집단	1.2	3.4	0.37
저소득층	상위집단	0.7	2.6	0.25
	극빈층	0.5	2.3	0.21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낮은 임금은 소득불안정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임은 자명함

- 고소득층의 63.2%, 중산층 중상위집단의 46.7%가 상용직인데 비해, 중산층 하위집단과 저소득층 상위집단의 경우 각각 21.4%와 3.0%만이 상용직임

〈표 10〉 가치분소득 기준 소득집단별 가구주의 경제활동참여상태 (단위: %)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활, 공공 근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합계	
고소득층	63.2	5.4	1.5	0.0	12.6	10.5	0.3	0.0	6.5	100.0	
중산층	상위집단	46.7	13.2	6.0	0.2	4.8	18.2	0.4	1.0	9.6	100.0
	하위집단	21.4	17.6	12.1	0.5	2.4	19.9	0.4	1.6	24.1	100.0
저소득층	상위집단	3.0	9.0	11.1	2.3	1.7	17.9	0.7	2.8	51.6	100.0
	극빈층	3.6	3.5	3.6	1.5	3.0	16.4	0.1	1.6	66.8	100.0

## 4. 패널자료를 이용한 사회경제적 특성별 중산층 동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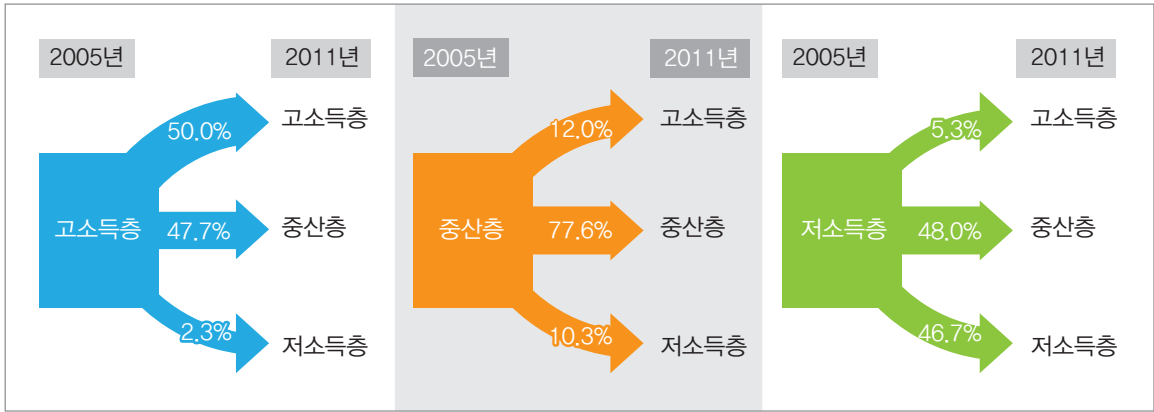
■ 가치분 소득기준 소득계층 변화(분석 표본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생존한 5,271가구. 이하 동)

○2005년 고소득층이었던 사람은 2011년에 50.0%가 고소득층에 그대로 머물고 있고, 47.7%가 중산층으로 그리고 2.3%가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5년 중산층이었던 사람은 2011년에 12.0%가 고소득층으로 계층상승하고, 77.6%가 중산층에 그대로 머물고 있고, 10.3%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05년 저소득층이었던 사람은 2011년에 5.3%가 고소득층으로 48.0%가 중산층으로 계층상승하고 46.7%는 저소득층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집단 변동



<표 11>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집단 변동

(단위: %)

2005 \ 2011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고소득층 <sup>1)</sup>	12.9 (50.0)	12.3 (47.7)	0.6 ( 2.3)
중산층	7.1 (12.0)	45.8 (77.6)	6.1 (10.3)
저소득층	0.8 ( 5.3)	7.3 (48.0)	7.1 (46.7)

주: 1) 괄호 밖은 인구대비 퍼센트, 괄호 안 2005년 기준 소득계층이 2011년 소득계층으로 이행한 비중을 나타냄. 고소득층(중위소득의 150% 이상),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 저소득층(중위소득의 50% 미만)

○ 가구규모별 소득계층 변화(가처분 소득기준)

-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가구는 평균가구원수가 감소하고 있음
-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사람(전인구의 0.6%) 중 1인 가구 비율은 2005년 16.3%에서 2011년 44.6%로 증가하였고,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사람(전인구의 6.1%) 중 1인 가구 비율은 2005년 18.6%에서 2011년 28.4%로 증가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계층 하락이 가구원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즉,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주 소득자와의 가구 분리가 가구원 감소로 이어져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락될 수 있음을 의미

<표 12> 계층 하락 가구의 가구규모 분포

(단위: %)

구분	연도	평균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합계
고→저	2005	2.6	16.3	33.1	21.9	27.9	0.7	100.0
	2011	2.2	44.6	16.0	13.6	25.8	0.0	100.0
고→저	2005	2.6	18.6	33.0	24.4	18.4	5.6	100.0
	2011	2.4	28.4	31.1	21.2	13.3	6.0	100.0

○주거점유형태별 소득계층 변화

- 2005~2011년 간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하락한 가구는 전세와 자가 비중이 동시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하락한 가구는 자가 가구 비중이 낮아지고, 차가 가구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 가구들은 소득빈곤화와 동시에 차가 가구 비중 증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위 '하우스 푸어' 로 지칭되는 주거 불안정 계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표 13〉 계층하락 가구의 주거점유 형태 (단위: %)

구분	연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기타	합계
고→저	2005	52.8	0.0	27.3	1.3	18.5	100.0
	2011	60.5	9.7	27.8	0.0	2.0	100.0
중→저	2005	55.9	16.1	17.2	2.4	8.5	100.0
	2011	49.2	18.7	18.2	2.6	11.3	100.0

○가구주 경제활동 참여상태별 소득계층 변화

- 2005~2011년 간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가구의 대다수의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남
-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계층의 하락은 경제활동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전락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남

〈표 14〉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집단 변동유형별 가구주 경제활동 참여상태 (단위: %)

구분	연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활, 공공근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합계
고→저	2005	34.0	22.7	5.5		10.6	21.7			5.6	100.0
	2011		9.1	6.9	1.9	3.5	14.9			63.9	100.0
중→저	2005	7.7	17.3	16.0	0.8	1.5	20.1	0.6	4.6	31.3	100.0
	2011	2.6	9.5	11.1	1.5	1.4	16.4	0.4	4.4	52.7	100.0

○가구주 연령별 소득계층 변화

- 노인가구주 가구의 36.2%는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으며, 13.1%는 이전에 중산층이었으나 2011년 저소득층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노인가구주 가구 중 지속적으로 중산층에 머물러 있는 가구는 네 가구 중 한 가구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결과는 공적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통해 중산층 노인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을 시사함

〈표 15〉 2011년 기준 가구주 연령별 소득집단 이동 분포 (단위: %)

구분	상→상	상→중	상→빈	중→상	중→중	중→빈	빈→상	빈→중	빈→빈	합계
25~44세	14.0	16.2	0.5	6.9	48.7	4.6	0.7	6.2	2.2	100.0
45~64세	14.0	11.3	1.1	7.4	44.9	6.4	1.0	7.5	6.5	100.0
65세 이상	3.7	7.6	0.6	1.5	25.8	13.1	0.6	10.8	36.2	100.0

## 5. 시사점

- 중산층 70% 달성이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복지정책 및 조세정책 등의 확대가 필요함
  - 대략 4가구 중 1가구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유동하는 가구로 추정되며, 공적이전 소득 및 조세가 중산층을 7.1%p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표 3 참조)
- 중산층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실시로 중산층 진입 촉진과 탈락방지 필요
  - (연령별 맞춤형 정책) 중산층 하위집단과 저소득층 상위집단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매우 높고(표 4 참조), 향후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감안할 때, 노후소득보장과 노인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산층 70%라는 정책목표 달성은 지남할 것으로 판단됨
    - 기초연금 확대, 노인 적합 일자리 창출,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ITC 확대 시 노인을 자녀수에 포함(현재는 자녀수에 따른 급여 차등 실시), 공공형 역모지기제 도입 등의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
  - (가구규모 및 가구유형별 맞춤형 정책) 중산층 하위집단과 저소득층 상위집단의 경우 1인 가구, 모자가구, 소년소녀 가정 및 조손가구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감안할 때(표 5/표 6 참조)
    - 다가원에 대한 세금감면, 부모를 모시는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 여성 적합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이 필요
  - (주거점유 형태별 맞춤형 정책) 전세 및 보증부 월세 가구의 경우 고소득층에서 빈곤층으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하락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표 13 참조)
    - 저소득과 주거불안정이라는 지출 요인을 동시에 안고 있는 중산층 하위집단과 저소득집단의 경우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중산층 정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거 안정정책 확대 필요
  - (경제활동 및 참여상태별 맞춤형 정책) 중산층 하위집단과 저소득층 상위집단의 경우 가구내 근로자수가 적고, 비 경제활동 인구가 많고, 임시 고용직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표 14 참조)
    - 무엇보다도 경제활동 가능한 가구원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통해 중산층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과 복지와의 연계정책이 강화되어야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업 확대 등이 필요
    - 근로가능계층의 경우 ‘일을 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일자리에서 일하느냐’가 안정적인 중산층 진입의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
- 미래 중산층 육성을 위하여, 계층 ·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등의 인적 · 물적 자본 확대가 필요하고, 국민연금 등의 사각지대 축소가 필요

집필자 | 김미곤 (사회통합연구센터 연구위원)    문의 | 02-380-8203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